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1995년 부활절 메시지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감사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제는 그리 신비로울 것이 못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몇 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알려진 좁은 공간
 입이 입증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도 제한된 미래의 틀 안에 있으며
 매 순간 조여드는 분초 속에서 종말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
 고 있는 인간은 더욱 초라해 보입니
 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못을 쳐버립니다. 이것이 인
 생의 전부라 한다면 우리는 일종의 밀실공포
 증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뚜껑을 활짝 열어젖히고 광활
 하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한 사건
 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
 건입니다.

조여드는 세계에서 숨통이 터져 질식하게
 된 마당에서 벗어날 구멍이 뚫린 것은 희망이
 요 기적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소
 망의 창구이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은
 혜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생명과 소망인 부활을
 장황하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
 지 주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고전15:19).**

만일 우리의 생이 이 세상 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정직하고 옳게 살려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모두가 바보요 불쌍한 자가 될 뿐일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약육
 강식이 팽배해 가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고,
 고아와 과부는 천대와 억울함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어찌될 뻔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며 부활의

“
**예수의 부활은
 불의와 죄와 불완전한 인간지식에 대한
 정의와 은혜요, 하나님 지혜의
 승리입니다.**
 ”



이종윤목사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용기요 희망이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죄에 대한
 은혜의 승리입니다(고전15:17 - 18).**

부활 없는 십자가는 배신이요 모독이며 조
 롱이고 패배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미움에 의하여 정복되지 않았
 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능동적 사랑으로 죄
 를 이기셨습니다. 고로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원수갚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며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인간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입니다
 (고전15:20).**

고린도 교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
 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해서, 그리고 반(反)
 지식주의자들의 회의론적 불신앙 때
 문에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로 전락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수는 인간 지식으로 설명하도록 부활하신 것
 이 아닙니다. 봄철에 소생하는 풀잎이나 달걀
 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부활하신 것이라
 면 어쩌면 그것은 인간과학의 승리라 할 것입니
 다. 시험관을 통해 생명을 출산케 하는 현대
 과학이 불치병에 걸린 인간을 냉동시킨 후 새
 로운 약이 개발되었을 때 부활시키겠다는 것
 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
 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기독교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말도 안되기 때
 문에 나는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을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풀 수 있는 것이라
 면 저도 그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 형편
 없는 인간 지식으로 설명되는 것이라면 무슨
 믿을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지식을 초월함을 아
 주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인간 지식과 능력보다 훨씬 큰 힘이 이 부
 활에 작용했고 이 큰 힘 때문에 우리는 소망
 을 갖게 되고 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의를 위
 하여 오늘도 싸우고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영원
 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성도들은 현재 이런 나라 영광으로 받았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소유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때문에 성도들은 사망을 이기고 산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라고 선언한다. 성도들은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은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셨네"(찬송가 157장)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된다. 죽음은 성도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마치

막 이별이 되지 않는다. 셋째, 성도들은 부활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현재의 삶을 경시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전15:58)고 단언한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죄가 아닌 이상 항상 귀한 일이요 헛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산 제사'(롬 12:1)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건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정이 있을 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부활을 은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좀더 뜻 깊은 열을 맞으려고 정성을 쏟아 연습해 왔다. 랍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 우리의 생활에서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겠 원리고 좀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 일의 선두에 선 찬양대원의 자리에 함께 할 기를 바란다. '나는 노래를 잘못하니까' 또 '박간이 없으니까' 하는 평계와 안일한 생각 켜버리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찬양대에서 계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

말: 수를 부활절, 우리의 원수 마귀를 짓밟아 이기 리하시니 주님을 기뻐한다. 천 부활절에는 나 자신부터 주님을 본받아 시키하고 질투하며 모함하였던 잘못된 생 처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한 몸과 으로 조금이나마 더 떳떳하게(?) 부활하신 을 만나야겠다.

활의 주님을 가슴 벅차게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양대 지휘)

해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수있는 은혜를

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와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만에 다 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족 았을 주라"(마28:19)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원. 든 은혜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이다”
천 기 성 (집사, 11교구)

지 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예수 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 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라고 하 신 여섯번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허락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 지한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로 버림 바 되어 우리 의 죄를 송두리째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 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의 절규는 하 나님께 진노의 책계를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되심을 입증한 위대한 말씀이라는 설교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무심코 부르던 '아버지' 라는 세 글자에 엄청난 무 게가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씌에는 십자가의 상징인 예수그리스도의 고난, 구원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담겨있음을 믿을 때 에만 부를 수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믿 음 적은 죄인인 저에게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하며 부활절 아침, 다시 사신 주님께 뜨겁게 결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간절히 기 도하옵는 것은 지금까지 거저된 욕망으로 부패 해가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제부터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정결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의 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새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 간증
부활의 체험,
부활의 소망
최 윤 정 (집사, 9교구)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한 것은 작년 8월. 자궁경부암 3기로 수 술을 할 수 없는 부위라는 절망적인 선고였다.

치료를 위한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였고 나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수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암은 죽음과 연결되는 병인데 왜 하나님은 이 무서운 병을 내 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모든 것 이 이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협력하 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로 신실하게 서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었다. 믿는 자에게는 모 든 일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 는 일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 를 조직하셨나이다...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 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날이 하나도 되기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장 부(臟腑)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 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로운 치료를 받던 중 2 개월만에 깨끗하게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사랑의 수고로 일관해 온 서울교회 믿음 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 함으로써 그 빛을 값으려 한다. 그리고 새로 얻은 듯한 삶을 살게 하시어 오늘의 감격을 맛보게 하 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을 크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부활절 헌금과 금식헌금은 헌금시간에

새벽 5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는 오늘 I, II, III부 예배를 부활절 예배로 드린다. 부활절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감격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헌금시간에는 부활절 감사헌금과 고난주간 동안 절제하여 모은 금식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한다. 금식헌금은 고난 주간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함경북도 일원의 근로자들을 위해 국제 선명회를 통해 통일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통일벼 한 가마니는 삼만 삼천원(수송비 포함)이며, 이는 한 가족이 40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북녘 땅에도 부활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수) I, II부 예배 시에 1995년도 제 2차 학습·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수요 예배 전, 후에는 주님의 피흘리심을 기억하며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였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부활절 찬양예배

오후 5시,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
피터슨 곡 “할렐루야 구세주께”

오늘 저녁 5시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오정수 장로, 지휘: 서동일 선생)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부활절 칸타타로 부활절 찬양예배를 드린다.

연주 곡인 존 피터슨(John W. Peterson) 곡 “할렐루야 구세주께”는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함」, 「예수 다시 사셨네」 등 공생애부터 부활하시기까지의 예수님의 발자취와 교훈을 담고 있다.

각 부서의 부활절 행사

- 탁아부** - 생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탁아부에서는 교사들이 달걀 장식과 매추리 알 목걸이를 정성껏 만들어 꼬마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 떡잔치도 벌일 예정. (집회: 오전 9시, 11시 / 202호).
- 고등부** - 성극 「고물장수와 아가씨」를 공연한다.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얻은 소재로 부활절 아침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갖게 될 것이다. (집회: 오전 11시 / 401호).
- 대학부** -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태먼」, 「한마음」, 「좋은 땅」, 「전원 참석」, 「낮아짐」, 「믿음의 방패」, 「제 8다락방」 등 특이한 이름을 가진 8개 조가 각각의 특성을 따라 준비한 찬양으로 경연대회를 연다. (집회: 오후 12시 50분 / 401호).
- 청년부** -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회년선교회에 장식 달걀을 선물하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부활절을 맞는 이들을 위로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집회: 오후 2시 / 201호).
- 유치부** - 선생님들이 인형극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준비하였다. 반별로 예쁜 달걀 콘테스트도 가질 예정이다. (집회: 오전 9시, 11시 / 별관).
- 유년부** - 성극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를 공연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한 두 제자의 간증이 성극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집회: 오전 9시 / 301호).
- 중등부** - 중등부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로 찬양예배를 드린다. (집회: 오전 9시 / 201호).

■ 제 7 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④ 4월 1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청교도들의 영성 (원종천 박사)
- ⑤ 4월 24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요나단 에드워드의 영성 (S. 로간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